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젠슨 황 해임으로 불확실성은 진정됐으나, 유가와 금리 부담은 공존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2일(목) 미국 증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사임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낙폭이 축소되며 장중 상승하기도 했으나, 경영 불확실성과 유가 및 금리 급등, 네비우스(-16.8%)의 가이던스 하향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합의 불필요' 발언에 국제유가(WTI +2.6%)와 미 10년물 금리(+2.5%)가 동반 급등한 가운데, 엔비디아(-4.3%)는 52주 신저가를 기록(다우 -0.4%, S&P500 -0.4%, 나스닥 -0.4%,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사임은 단기적으로 AI 투자심리에 부담이지만, AI 산업 전반의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사임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 14% 넘게 급락하고 나스닥도 한때 1.56% 하락했으나,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빠르게 축소. 특히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5.9%), 브로드컴(+5.5%), 알파벳(+1.8%)이 동반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 이는 시장이 젠슨 황 사임을 AI 수요 자체의 훼손보다는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 약화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 엔비디아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경쟁사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

과거 주요 기술기업의 CEO 교체 사례를 살펴보면, 주가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한 것은 초기 충격보다 후임자의 경영 승계 과정과 실적 성장 여부였음. 애플은 2011년 스티브 잡스의 건강 문제에 따른 사임에도 준비된 승계 체계와 견조한 실적 성장에 힘입어 주가 충격을 빠르게 만회. 반면 인텔은 2018년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사임 당시 양호한 실적에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약 1년 뒤 주가가 8% 하락. HP 역시 2010년 마크 허드 사임 이후 선임된 레오 아포테커의 경영 전략 실패와 실적 부진이 겹치며 재임 기간 주가가 약 47% 하락. 결국 CEO 교체 자체보다 경영 공백의 장기화 여부와 기존 사업의 성장세 유지가 기업가치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음을 확인.

다만 엔비디아는 젠슨 황 개인의 경영 판단과 대외 협상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보다 복잡한 상황. 특히 젠슨 황 사임을 계기로 미 의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현재 AI 칩 수출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와 우회 수출 방지 법안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미중 무역휴전에 따른 일부 수출통제 조치의 시행 유예도 2027년 1월 10일 종료될 예정. 이에 따라 후임 경영진의 사업 전략뿐 아니라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여부도 엔비디아의 중장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 다만 사임 발표 직후 콜렛 크레스 CFO를 임시 CEO로 선임하고 정식 후임 물색에 착수한 점은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 향후 17일 실적 발표에서의 AI 수요 전망과 기존 사업 전략의 유지 여부가 단기 주가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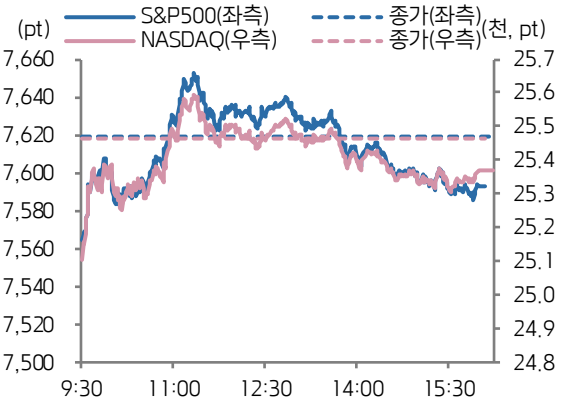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의 양산 일정과 주요 고객사 공급 계약이 상당 부분 확정돼 있어 향후 1~2년간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따라서 젠슨 황 사임에 따른 불확실성이 SK하이닉스 등 엔비디아 관련 공급사에 일시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업황 전반의 추세 훼손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전망. 다만 엔비디아의 의사결정 권한이 젠슨 황에게 집중돼 있었던 만큼, 후임 경영진의 전략에 따라 공급사별 물량 배분이나 차세대 제품 공동 개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 결국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 조정이 추세적인 약세로 이어질지는 경영진 교체 자체보다 기존 공급 계약과 제품 출시 일정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코어위브 급등에 따른 AI 투자심리 개선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순매도가 확대되며 하락 전환 마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추가 불륜 의혹과 이사회의 해임 준비 보도가 전해지며 경영진 교체 불확실성도 부담으로 작용 (코스피 -0.6%, 코스닥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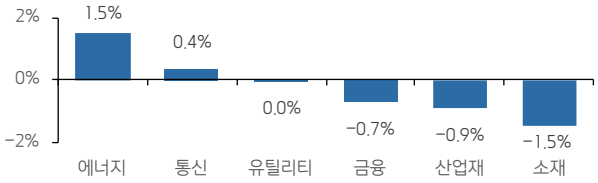
금일 코스피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사임 확정과 SK하이닉스 ADR(-3.2%) 약세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출발을 예상. 전일 국내 증시가 젠슨 황 경질 가능성을 일부 반영한 가운데,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장중 낙폭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 마감한 점은 추가적인 충격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 다만 유가와 미 국채금리 급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은 제한될 전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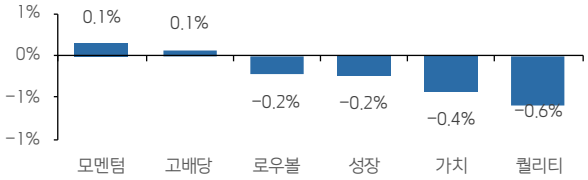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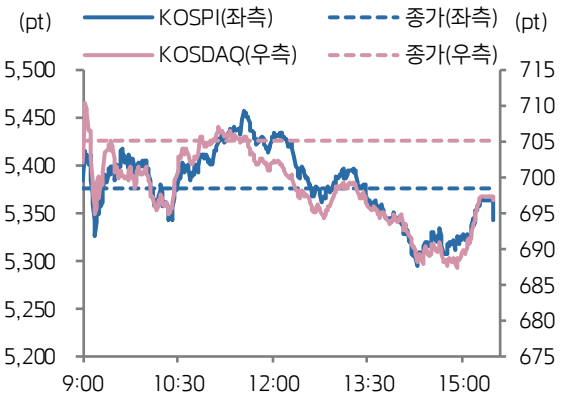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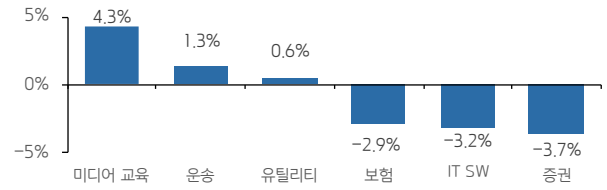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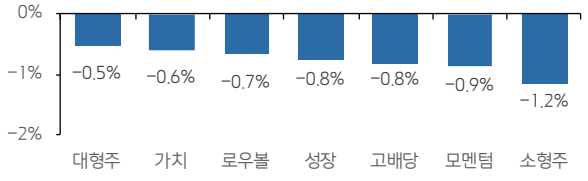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54.84	-0.22%	+30.52%	GM	86.25	-2.98%	+6.06%
마이크로소프트	523.00	+0.36%	+8.14%	일라이릴리	1,427.28	-0.7%	+32.81%
알파벳	298.70	+1.79%	-4.57%	월마트	126.19	+0.41%	+13.27%
메타	623.61	-0.82%	-5.53%	JP모건	342.82	-0.17%	+6.39%
아마존	267.44	+0.48%	+15.87%	엑손모빌	169.78	+1.84%	+41.08%
테슬라	397.45	+1.69%	-11.62%	셰브론	216.35	+1.44%	+41.95%
엔비디아	166.19	-4.34%	-10.89%	제너럴일릭트릭	126.19	+0.4%	+13.3%
브로드컴	364.36	+5.54%	+5.28%	캐터필러	605.28	+0.61%	+5.66%
AMD	585.30	+5.86%	+173.3%	보잉	171.55	-1.71%	-20.99%
마이크론	798.44	-1.59%	+179.75%	넥스트에라	85.29	-0.8%	+6.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342.73	-0.61%	+26.78%	USD/KRW	1,336.05	-0.1%	-7.19%
코스피200	833.57	-0.57%	+37.56%	달러 지수	103.18	+0.26%	+4.94%
코스닥	696.53	-1.22%	-24.74%	EUR/USD	1.11	-0.32%	-5.89%
코스닥150	1,149.35	-1.5%	-25.72%	USD/CNH	6.67	-0.01%	-4.33%
S&P500	7,592.40	-0.35%	+10.91%	USD/JPY	159.87	+0.05%	+2.02%
NASDAQ	25,366.09	-0.39%	+9.14%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2,297.09	-0.36%	+8.81%	국고채 3년	3.731	+0.3bp	+78bp
VIX	18.69	+6.86%	+25.02%	국고채 10년	3.940	-1bp	+55.5bp
러셀2000	2,799.06	-1.66%	+12.78%	미국 국채 2년	4.877	+14bp	+140.4bp
필라. 반도체	10,506.67	-0.54%	+48.33%	미국 국채 10년	5.123	+13.1bp	+95.6bp
다우 운송	20,538.92	-0.58%	+18.33%	미국 국채 30년	5.450	+9.7bp	+60.6bp
상해종합	3,655.83	-0.67%	-7.89%	독일 국채 10년	3.347	+3.1bp	+49.2bp
항셍 H	8,056.76	-1.4%	-9.61%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911.01	+0.04%	-3.88%	WTI	88.74	+2.55%	+55.9%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5.82	+3.3%	+57.47%
Eurostoxx50	6,398.98	+0.09%	+10.49%	금	3,885.30	-2.88%	-13.61%
MSCI 전세계 지수	1,121.15	+1.12%	+10.5%	은	50.07	-3.72%	-29.09%
MSCI DM 지수	4,886.12	+1.04%	+10.29%	구리	619.60	-1.49%	+9.05%
MSCI EM 지수	1,576.22	+1.78%	+12.24%	BDI	2,959.00	+3.39%	+57.65%
MSCI 한국 ETF	145.38	-1.64%	+49.54%	옥수수	442.25	-1.28%	-3.96%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7.50	-2.73%	+2.88%
비트코인	71,546.43	-3.75%	-18.37%	대두	1,219.50	-0.91%	+13.44%
이더리움	2,018.07	-2.45%	-32.23%	커피	274.55	+3.74%	-11.7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11월 12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